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시스템 개통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된 협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거나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여 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 초래 등 통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보통신신용정보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7월 29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의 구영보 국장과 LG텔레콤의 심재혁 부사장, 한국통신프리텔의 김우식 상무, 한솔PCS의 이용숙 상무, 현영시스템즈의 김현진 대표이사의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통신서비스 업계의 불량이용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량이용자 DB를 구축하여 협회와 통신사업자, 신용정보업자간 상호 신용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망을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통신서비스 업계는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신규가입자 발생시 적색으로 분류된 자사 및 타사의 통신요금체납자,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각자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불량이용자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등록 하였다. 또한 악성으로 분류된 고의·상습적인 불량이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은행이나 백화점, 자동차 등의 신용거래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협회는 전 통신서비스 업계를 하나의 신용정보 공동관리망으로 연결하는 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98년 11월말까지 셀룰러 사업자, PC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무선호출 사업자의 불량이용자 DB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망을 구축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사이버쇼핑 엑스포 '98」 개최

협회는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이용확산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이를 통한 국내 경제·산업 전반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9월 14일부터 2개월동안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간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사이버쇼핑 엑스포 '98」이 행사중에 있다.

이로써 기업과 소비자간 직거래 판매를 통해, 기업에게는 판매촉진의 전기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알뜰구매를 지원하게 된다는 효과를 얻게된다. 기간중 판매되는 상품은 농·수산물 및 공산품, 기타 S/W 및 서비스 상품 등 일반소비자 대상 상품 전품목과 행사기간중 소비자와 기업간의 직거래에 의한 가격인하 상품 및 행사기간중 특정기간, 한정수량, 특별할인 방식 및 특수조건으로 판매할 특판 행사상품 등 이다.

이 행사는 협회에서 메인서버를 운영해 DB검색을 통한 최적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행사참여몰(Mall)을 추천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협회는 이 행사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Y2K 학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협회는 지난 8월20일 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엑스포 호텔 (대전 유성)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 대한산업공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공동주최로 Y2K 학계 전문가 세미나를 가졌다.

컴퓨터 2000년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외국어 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정인근 교수 등 국내 학계 전문가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씨엔지정보기술(주)의 송진현 대표의 "2000년문제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해외 Y2K대응사례 비디오 상영과 한국전산원 이태섭씨의 "정부의 2000년 문제 대응책", 한국IBM(주)의 "영향조사 및 문제해결 방법론", 삼정퀵설팅(주) 박종운씨의 "NON-IT Y2K 해결방법론", (주)송우정보 신종철 대표의 "Y2K TOOL 활용방법", 삼성SDS(주) 이철행씨의 "제품 및 법적대응" 등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 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협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태인 조사연구실장의 "국내 산업계등 민간부분 대응 현황", 최성규 사업관리본부장의 "CCPAK의 Y2K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발표에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 졌다.

99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마감

'96년도 부터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활용지정업체 추천」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부터 행정위임 받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우리협회는 '99년도 산업기능요원활용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신문공고, 협회 홈페이지 게재, 중소기업통신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98.7.10 부터 1개월동안 접수하여 지난 8.10일자로 마감하였다.

이번 신청접수 결과 '99년도에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모두 74개업체에서 398명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103개 업체에서 1,036명 신청에 비해 업체수는 28%, 인원규모로는 61.6%로 각각 감소된 규모다.

또한, 이미 지정받은 268개업체의 '99년도 필요인원은 1,426명으로 업체당 평균 신청인원이 5.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191개업체에서 1,837명을 신청 업체당 평균 9.6명인데 비해 평균 4.3명이 줄은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위기하의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수가 격감하였을 뿐만아니라 기존 업체중 30여개업체가 '99년도에 단 한명도 채용계획이 없는 것에서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번 신규로 신청한 업체는 정보통신부의 추천과 병무청의 심의를 거쳐 12월초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개별 통지되며 기존업체에 인원배정도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해외유관단체와의 상호 국제협력 체결

협회는 지난 7월 15일 대만의 중화민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CISA,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ssociation of R.O.C)와 상호업무협력관계를 체결하였다.

CISA는 1983년도에 설립되었고 대만 및 중국본토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순수 독립민영단체로서 약 55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연구지원,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소프트웨어 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11일 이스라엘 제조협회(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sraeli(MAI) 산하 단체인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하우스 협회(IASH : Israeli Association of Software House)와 상호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고 11일 국제협력합의서를 교환했다. IASH는 198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자국내 관련업체는 물론 세계각국에 150여개의 주요소프트웨어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R&D 및 표준화 지원, 자국 및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의 마케팅전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해결사례 중심의 Y2K 국제 세미나 개최”

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산업계에 Y2K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모범적인 해결사례와 국내 주요기관들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Y2K 국제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98. 9. 8(화) ~ 11(금) 4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Y2K관련 세미나에서 볼 수 없었던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업계, 통신업계, 제조·설비부문의 해결사례를 주 내용으로 4일간 각 주제별로 진행 되었다.

첫째날은 국내 Y2K 대응 정책 및 국방 등 공공부문의 Y2K 해결 추진사례, 한국전력공사의 대응 사례, 캐나다 MCCR(Ministry of Consumer & Corporate Relations)의 대응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금융 및 통신업계의 해결 사례를 주제로 캐나다 Royal Bank,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해결사례, 미국 Blue Cross 보험사의 테스트·검증사례 및 국내 금융업체인 동아생명의 Y2K문제 해결사례 및 서울은행의 테스트·검증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통신업체로는 뉴질랜드텔레콤사의 Y2K 해결 사례와 그 밖의 외국 통신업체들의 Y2K 대응현황이 발표됐다.

마지막 넷째날에는 제조·설비부문의 해결사례를 주제로 미국의 Texas Instruments사의 Y2K 해결사례와 EMC사(반도체 제조)의 BPR을 통한 평가 및 검증사례와 국내 포항제철의 Y2K 추진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국내 산업 설비의 Y2K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설비부문의 Y2K문제 추진 전략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여 참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 통신업계, 제조·설비부문의 선진

해결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산업계 및 사회 기간산업분야 등에 Y2K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협회는 국내 민간부문 Y2K 문제 해결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Y2K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정보제공, Y2K해결 촉진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1회 대학 정보통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제안서 접수 마감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보통신 벤처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한 대학내 벤처 창업붐 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한국대학생벤처창업연구회가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제1회 대학생 정보통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제안서 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7월 6일 공고하여 통신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 등을 통해 8월 21일까지 접수 마감한 결과 전국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서 280여건의 아이템이 접수되었다.

협회는 접수된 아이템을 멀티미디어·컨텐츠분야, 네트워크S/W분야, 일반S/W분야 기기 및 부품분야 등 4개분야로 구분, 평가하여 대상(정보통신부장관상) 1편 등 총 28편의 수상작을 결정하게 된다. 수상작은 9월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www.ccpak.or.kr)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신문(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아이템은 페어개최를 통하여 투자 알선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되며, 특허 및 실용신권 출원을 희망하

는 아이템은 한국대학생벤처 창업연구회를 통하여 출원을 지원하게 된다.

Y2k 솔루션 전시회」 개최

협회는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솔루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Y2k 솔루션 전시회"를 제6회 개방형시스템 솔루션 전시회와 공동으로 개최, 공공·민간부문 관계자 등 12,000여명이 관람했다.

이날 전시된 제품들은 NICE Dates, Asia의 NICE Dates& NICEFIX(Total Solution for y2k) 및 Yes! 2000(케미스정보), SS/R(소넷코리아), Reasoning/2000 & UniSAVER/2000(삼성SDS), Revolve/2000(송우정보), VISION:Solutions for year 2000(스틸링소프트웨어코리아), RDD-100, yera 2000 Plus(ASCENT LOGIC KOREA) 등이다.

또한 4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 기간중 7월 10일 「Y2k 솔루션 세미나」를 함께 개최해 그동안 국내 대응의 시간적, 인적의 부족한 문제점의 대처방법과 현재 Y2k의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유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